



▲상해 예원(豫園)풍경

중 국

대륙의 장막을 헤치고(4)

배 순 덕

중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다. 하나는 중국 국민들이 쓰는 '인민폐(人民幣)'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인 달러나 엔화 등을 환전할 때 받는 돈인 '태환권(兌換券)'이 그것이다. 태환권은 외화권(外貨券)이라고도 하며 그 돈이 원래 외화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중국은행이 발행한 돈이다.

공항이든 호텔이든 그곳에 있는 환전소는 모두 중국은행의 지점이므로 환전비용

은 같다. 또 외국인 전용백화점인 우의상점(友誼商店)에도 환전소가 있는데, 환전을 할 때는 반드시 외화교환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했다가 출국시에, 쓰고남은 태환권을 다시 바꿀때 제출해야만 재 환전이 가능하다

상해박물관 가는 길에 옥불사와 공예백화점과 그 밖에 몇 군데를 더 들렀다.

버스가 서자 우리가 미처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 들었다. 그들은 손

에 든 엽서나 수건, 뺏지 따위의 기념품을 들어 올리며 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소리는 엉뚱하게도,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체인지 머니”라는 말이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빈 손으로 다가와 은근한 눈빛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돈을 바꾸자고 조르기도 한다. “체인지 머니” “체인지 머니” 하면서…

그 같은 풍경은 상해 시내의 공예백화점 앞 대로에서도 버젓이 행해지곤 했는데, 뒷날 북경의 자금성이나 이화원 등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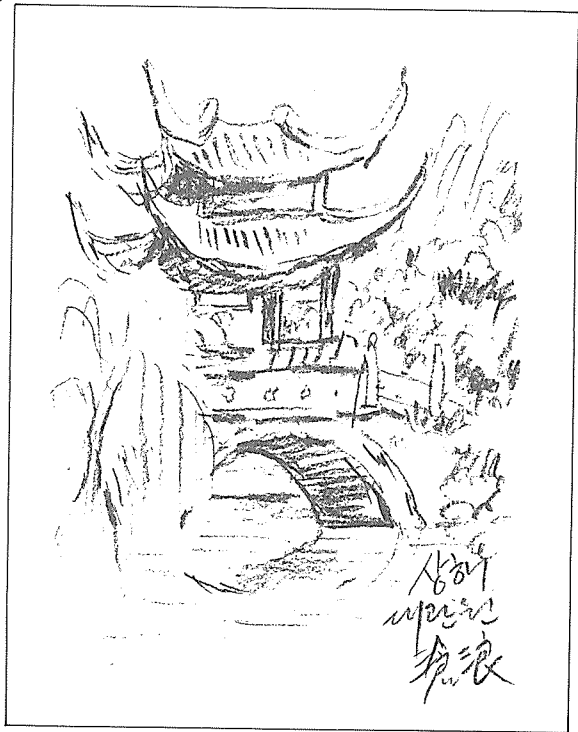
암달러의 교환은 금지된 사항이지만, 한번쯤은 시험삼아 흥정을 해볼만하다. 거래는 쉽고도 간단하다. 이쪽에서 일단 바꿀 의사만 보이면 상대는 이쪽의 요구에 대하여 거의 모두 선선히 응해준다. 그들이 바꿔주는 금액은 인민폐이고 대부분 환전소보다 두배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교환해 준다. 허나 그러한 돈은 쓰고 남아도 재 환전이 되지 않아 중국을 떠나면 그대로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일반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상점에서라면 무엇이든 중국인의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택시와 외국인 전용인 우의상점에서는 그들의 손님이 외국인임을 알아차리면 더욱 막무가내로 태환권이나 달러를 고집하곤 한다.

상해에는 유일하게 정원이 하나 있다.



▶ 상해 대관원

상해 예원의 담장풍경. ▶
오랜 풍상 속에 하얗게 얼
룩지고 바랜 벽이 어느 순
간에는, 용이 폭포를 박차
고 하늘로 오르려는 것 같
이 보이기도 한다.



이름이 예원(豫園)이다.

소주(蘇州)에는 留園과 拙政園과 獅子林과 滄浪亭이 있고 상해에는 豫園(위유엔)이 있다고, 중국 내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곳이다. 관광객들이 오면 의례껏 들리는 곳 짬으로 꼽아지는 그 곳에는 타 지방에서 온 중국인들로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였다. 명나라 때의 관료인 반윤단(潘允端)이 아버지를 위해 세웠다는 대저택이다.

1559년에서 1577년사이에 조성되었으며 역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오늘 우리앞에 보여진 예원은 단순히 한 가정의 트랙만은 아닌 듯 했다. 그것은 곧 수천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중국인들의 의식 밑에 축적되어진 문화와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그들의 의식구조 등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마당안에 가산(假山)을 세우고 주변에

연못을 팠다. 집안의 정자에 가만히 앉아서도 4계절의 정취를 마음껏 맛볼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나직히 옆드려 있는 연못을 따라서 높고 낮은 언덕이 반복되고, 우거진 나무사이로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소로(小路)가 있고 군데 군데에 기암괴석이 놓여있다.

집안 벽에는 사각·육각·팔각형등의 창(窓)이 있어, 발을 움직여 시선의 각도를 달리 할 때마다 각기 다른 자연풍경의 액자 하나가 걸려있는 듯이 보이곤 했다.

특히 집 안쪽의 뒷뜰을 향한 벽에도 팔각형의 창틀이 있고 창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뒤뜰 담장 밑에는 대나무 몇그루가 심어져 있고 그 옆에 괴석이 놓여 있다.동양화에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인화 같은 풍경이다.

동쪽 정원에는 점춘당(点春堂)이라는 루각이 있고 거기엔 상해 소도회(小刀會)

벉스가 서자 우리가 미쳐 내리기도 전
 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들은
 손에 든 엽서나 수건, 뺨지 따위의 기
 념품을 들어 올리며 아우성이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와서 속삭이는 소리는 영똥
 하게도...

의 문물이 전시되어 있다.

소도회란 1851년에 발발한 太平天國의
 난에 호응해서 유려천과 진하림이 수령이
 되어 1853년 8월에 결성된 일종의 반당모
 임이다. 당시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유물
 이 전시되어 있는 바로 그 점춘당에서 청
 나라 정부에 반기를 들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들의
 유물을 모셔놓은 기념관이 되었다. 사람도
 가고 권력도 가고 그들이 도모했던 의지의
 흔적만이 남은 셈이다.

발길을 돌려 정원의 안쪽 서북부로 가면
 대가산(大假山)이라고, 모양이 기괴한 아
 주 큰 돌산이 보인다. 그것은 무강석이 퇴
 적해서 된 것이다. 높이가 12m이고 무게
 는 2만2천톤에 달한다. 석회암처럼 희뿌연
 회색빛의 돌산이다.

흙 시멘트가 섞인게 아닌가 싶어 쓰다듬
 어 보고 두드려도 보았다. 오랫동안 화강
 암에 익숙해진 눈에는 그리 편안하게 보이
 는 석질이 아니다.

석질 뿐아니라 돌산에는 이끼가 없다.
 어찌된 일인지 나무도 없다. 생명하나 보

들지 못하고 우뚝 서 있는 가산의 울퉁불
 통 괴이하게 생긴 모습이 오히려 삭막하게
 보여졌다.

그렇게 여기저기 미로처럼 얽혀있는 내
 부구조를 따라 돌아보면 마지막에 예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을 만나게 된다.

높다란 바람벽 위에 장식한 용마루의 기
 와 하나하나가 용의 비늘처럼 되어 있다.
 어찌 살펴보면 몇마리의 거대한 용이 꿈틀
 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우기, 오랜
 풍상 속에 하얗게 얼룩지고 바랜 벽이 어
 느 순간에는 폭포가 흐르는 것 같기도 하
 여 용이 폭포를 박차고 하늘로 오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
 간과 자연의 손길이 합작하여 만든 보기도
 문 광경이다.

마모되고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
 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예
 견하여 순응하는 자세로, 승화의 방법을
 찾아 담장을 축조해 갔을 어느 장인의 모
 습이 선연하다. ㉓

〈필자=화가. 호는 창랑(滄浪)〉